

세대 간을 소통하게 하는 열쇠세대

30대, 그들은 누구인가?

80년대 후반 한국사회는 대통령직선제 실시로 시민주권시대를 열게 되는 정치적 발전을 이룬다. 당시 서울을 필두로 지방과 아시안게임이 열리며 전쟁과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평화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신흥개발도상국가로서의 '코리아 브랜드'를 세계만방에 처음 알리게 된다.

그런데 이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탄생에 주목하게 된다. 바로 지금의 30대, 즉 'X세대'(65~76년에 태어난 세대)라고 불린 세대이다. 이들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응원하며 중·고등학교시절을 보냈고, 대학에서는 군사정권에 항거한 선배들의 민주화 투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불평·반항의식을 가졌으며 문화적으로는 개성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30대들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준 배경에는 민주화라는 정치적 발전과 핵가족화, 고도성장, 대중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 등이 있다. 30대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특징으로는 군사정권과 민주정권을 모두 경험한 세대다. 우선 선배들의 민주화투쟁과 공권력 충돌의 신랄한 비판을 가늠하며 살고 있는 세대이다.

둘째, 사회적 특징으로는 핵가족화를 처음 경험하기 시작한 세대이다.

셋째, 경제적 특징으로는 어린 시절 컬러TV로 상징되는 경제적 풍요로움과 스포츠 등 여가·취미생활을 경험한 세대이다. 예를 들어 야구, 축구 등이 프로로 전환되고 TV를 통해 이를 보며 응원하는 등 지금의 다양한 스포츠 팀 서포터스의 기초를 10대 시절부터 경험했다.

넷째, 교육적 특징으로는 기존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안정된 의무정규교육(초등학교~고등학교)의 중심에 있었으며 유치원의 대중화를 처음으로 경험한 세대이다. 다섯째, 환경적 특징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 발전에 독배가 되어버린 부동산 신화의 시작을 알린 신도시 개발을 통해 동네가 상전벽해가 되는 어린 시절을 경험한 세대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는 그들은 어린 시절에 퍼스널 컴퓨터(PC)를 처음으로 다루던 세대이다. 처음 MS도스체계가 등장해 컴퓨터 활용을 학원에서 배웠고 이후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한 네트워크 온라인의 세계를 경험했다.

이 가상현실 속에서 정치, 역사뿐만 아니라 만화, 게임, 연예계, 음악 등의 문화적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취미에 따라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다양한 기존의 압박 속에서 새로움을 찾기를 갈망하던 세대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우리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도 비판한다. 실제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지만 기성세대가 가진 편견으로 해소하지 못했다.

40대의 그늘과 20대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외국의 소설처럼 '자유로운 사고를 지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X세대인 30대는 지금 한국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현재 그들의 모습은 민주화의 경험을 하지 못한 일명 Y세대와 그 것을 경



문화적 풍요로움 속에 민주화투쟁을 보며 자란 30대는 사회이전다 형성에 적극 나서는 새로운 시대의 주축이다.

는 연결고리를 가진 유일한 세대로 주목받게 하는 요인이다.

그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지만 기성 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오고 있다. 그들은 내부적으로 자체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의 제고는 투쟁과 계몽이었다면 이들의 방식은 토론을 통한 논의와 협력 및 소통이다.

최근 공정사회와 정의가 주목받고 있다. 예로 최근 벌어진 외무부 공무원 채용 사건, 타블로 사태, MC몽 사태가 중심에도 그들이 있다. 이는 왜 공정하지 못한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사회에 던진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에는 과거에는 내세우기 힘들었던 공정과 정의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빠른 정보력을 기반으로 빨리 사람들에게 확산시키고 이슈화에 성공한다(스마트 폰의 트위터와 팔로우가 그 적절한 예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집단화가 가능하게 한다.

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평화와 통일을 고민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한 세대로 비춰진다. 또 선배세대의 부동산 투자 등 사회적 흐름에 동참했지만 점차 소외되고 이런 재산증식에 대한 꿈을 잃고 앓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자신들은 공교육을 통해 출발선이 대부분 비슷한 세대였지만 사교육에 미친 지금, 자신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세대이다. 게다가 앞으로 노인세대의 증가와 통일세 등의 신설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사익이 환수당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이들은 앞으로 막힐 어려움 보다는 민주화투쟁과 희망

정치적으로는 사회에 대한 불평·반항의식을 가졌으며

문화적으로는 개성을 중시하는 성격

협한 기성세대의 중간에 끼어 있는 'X세대'이다.

그들은 2000년대 초반에 정치적으로도 변모한다.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일등공신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지금의 30대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저 없이 자신을 버리고 그곳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세상변화에 민감하며 그것을 자발적으로 접목시키는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스스로가 중요한 위치에 서기 보다는 그 역할에 만족하고 묵묵히 일을 해내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마 486세대라는 현 사회변화의 주도세력과 N세대와 Y세대라는 신진 네트워크 세대와의 사이에서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채팅이나 소위 외계어 사용에 서투르며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 면으로 보면 분명 앞선 세대와 비슷한 모습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는데는 분명 차이가 존재한다. 이는 30대를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서로 이해하

을 모르고 확장시절을 보낸 세대. 풍요롭게 부모님의 보호 아래 현재 소비세대의 주역이 된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라의 자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배워오고 경험한 것들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차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는 과거세대의 물리적 방법이 아닌 그들의 정신적이면서 고도화된 방식인 문화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해결과 우리 사회 발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대는 기존대로 소통의 열쇠를 지고 있는 30대라고 생각한다.



조성배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원

30대 인터뷰

다양한 문화와 개성을 가진 세대

손동대 씨 "가치관 맞게 사는지 돌아봐야"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30대들을 이해해 주세요"

한국 청년 불자들이 이끄는 대한불교 청년회에서 총무부장과 대의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손동대 씨(33).

손 씨는 윗세대들이 30대의 가치관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손 씨는 "아무래도 윗세대보다 여러 문화 활동을 하며 자랐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젊은 세대를 바라 볼 때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잣대만을 가지고 현상을 판단할 때 세대 차이를 많이 느껴요."

손 씨는 "특히 50~60대 분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감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또 어려운 시절을 겪은 자부심으로 젊은 세대들은 고생을 모른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손 씨는 이어 "사회가 풍요로워져 젊은 세대들이 고생을 모른다면 요즘 아이

들은 행복해야 하는데 골목길에서 놀지도, 흙길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정말 불행하게 산다. 공부에 치여 고생하고, 취업 같은 여러 문제로 고민한다"고 말했다.

손 씨는 20~40대의 사람들은 성장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대차가 잘 느껴지지 않지만 보다 자립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씨는 "최근 많은 청년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어른들에게 기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불교계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지위가 없음에도 원력 하나로 활동하는 40대 이상의 분들을 보면 느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손 씨는 "30대들은 자신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에 얼마나 맞게 사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

양선영 씨 "주입식 아닌 설명조 대화가 필요"

"세대는 나이가 아닌 무엇을 공감하는냐에서 갈려요"

10년 넘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양선영 씨(31)는 각종 법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자주 만나다.

"요즘 아이들은 자존감이 굉장히 강해요. 주입식으로 말하면 틀린 부분을 지적해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 씨는 "요즘 10대들과 어린아이들은 이전 세대들과 달리 형제 없이 혼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발언권이 세다. 또 어려서부터 인터넷과 같은 매체를 통해 자기만의 가치관을 이미 형성한다"고 말했다.

양 씨는 자신이 어렸을 때와 달리 레크리에이션 행사에서 10대들이 윗 세대들의 말에 반박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레크리에이션 행사에서 1조에서 6조까지 있었는데 6조부터 저녁식사하지 않고 있을 때 이를 거부하고 밥을 먹지 않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에게 점심때는

1조에서 먼저 먹었으니 이렇게 하자고 설명하자 더 잘 따르더군요."

양 씨는 이어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어린 사람들과 일

을 할 때는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기보다, 토론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양선영 씨는 레크리에이션 강습회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양 씨는 "강사 분들의 연령대가 20대에서 40대까지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레크리에이션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만나기 때문에 대화도 잘 통하고 함께 어울린다"고 소개했다.

양 씨는 "서로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나이 대를 떠나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 「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거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며, (본문에서)"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 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장,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목욕,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배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751017-52-024285 김순옥

빛 살림 정골요법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